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0년도 제5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9년 ACN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캠페인에 함께하며
출판한 고통의 성모 마리아 이론 앞에 모여 기도하는 시리아 어린이들

“**성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활력과 생기, 기쁨을 앗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며 염두에 두신 그대로 되면서도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자아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32항)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90세를 일기로 선종한 전례학자 필립 아르농쿠르는 선종 몇 주 전에 주교에게 성무일도를 면제해 줄 것을 청했지만, 병약한 가운데서도 매일 묵주기도는 계속해서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묵주기도의 의미를 강렬하게 증명하는 예가 아닐까요? 묵주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을 연결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굳세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면의 안정을 찾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저는 진심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을 때면 항상 하느님 안에서의 안도감을 경험하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오버 페이스로 힘이 빠진 운동선수처럼 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평온과 안정을 구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은 평온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10월 묵주기도 성월과 11월 위령 성월은 우리에게 성덕으로의 소명을 항상 새롭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묵주는 기도의 학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덕도 없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따르면, 묵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진정한 '성덕의 교육'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지 않은 성인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기리는 하늘 나라의 수많은 성인들도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하십니다. 모든 성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언젠가 우리와 천국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월 2일 '위령의 날'에 기억하는 모든 죽은 이들,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1코린 3,15) 구원이 필요한 연령들에게도 성덕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결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작가 레옹 블루아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마더 데레사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성덕은 소수의 사람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소박한 의무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성인은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는, 하느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을 보게 하며 깨닫게 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덕 이시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

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또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살아가시고 활동하시고 사랑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했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성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안에 성덕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는 동료 수사들에게 항상 "w=w"라는 성덕의 공식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w는 우리의 의지를, 큰 W는 하느님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의지가 언제나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어느 날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산책을 하다가 묘지에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행복하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지를 달성한 만큼 행복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묵주기도 성월과 위령 성월이라는 이 시기와 하느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통해 우리 삶을 '바르게' 만들어 봅시다. 성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는 "우리가 진실로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천국의 모든 성인들, 특히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하신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복을 보냅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명선

미사는 어디에서나,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교의 토대입니다. 성찬의 전례에서 바치는 감사기도 제3양식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사제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핵심 문제입니다.

탄자니아의 가브리엘 신부는 혼자 있지만, 미사 중에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큰 가치를 지닙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대중이 한데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순수한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봉헌금이 빠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툰두루 마사시 교구의 교구장 필버트 음하시 주교가 ACN에 보낸 서신에는 주일 헌금이 "우리 사제 대부분에게 유일한 지원"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병든 사제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이 모든 걸 말라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제에게는 신자들이 기꺼이 나눠 준 농작물이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비로 작물이 대부분 떠내려가서 수확량마저 저조했습니다. 음하시 주교는 교구장인 자신을 비롯하여 교구 사제 34명을 위해 ACN에 미사예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케냐 교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로드워 교구 교구장 서리는 ACN에 사제 39명을 위한 미사예물 지원을 문의했습니다. 로드워는 관할 면적으로 볼 때 케냐의 26개 교구

중 가장 큰 교구인데 가뭄과 흉년으로 자주 고통을 당합니다. 사제 대부분은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무엇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근근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코로나 시기를 맞아 신자들 없이 홀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로부터 미사예물 지원 요청이 주로 도착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들어옵니다. 남미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정치, 경제적 상황 또한 사제들을 큰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ACN은 2020년 상반기 5개월 동안에만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34개국과 다른 대륙 50개국에 약 85억 6300만 원 상당의 미사예물을 전달했습니다.**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청원기도를 드리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라고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청원들로 하느님을 귀찮게 해 드립니다. 미사를 통한 청원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드의 클라마드지베 신부.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케냐의 시제가 노인간 병든 사람들에게 성체를 모시고 찾아갑니다.

©Ismael Martinez Sanchez/ACN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

페루의 초타 성직 자치구는 안데스산맥 변두리의 선교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 60%, 일과 노력 20%, 상상력 10%, 경험 5%, 인내 5%, 여기에 유머로 양념을 쳐서 예수 성심의 불타는 오븐에 넣은 다음, 아주 넉넉히 식탁 위에 올립니다.



이 레시피는 <복음 사업의 그리스도인 리더를 위한 지침서>에 쓰여 있는데,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리교사 양성 과정이 시작된 이래로 거의 50년 동안 1,900명에 달하는 ‘요리사’를 배출하였고, 그들은 레시피에 따라 초타에서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음식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교사들은 대부분 농부이며, 사제가 가지 못하는 외딴 지역의 마을들을 찾아가입니다. 현재 신자 약 30만 명이 이 교리교사들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동 인구가 주민의 3분의 1을 구성합니다. 나머지 성인 인구는 5명 중 1명이 어렸을 적 학교에 다니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릅니다. 교리교사들은 마을의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5일간의 교육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전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는지, 기도는 어떻게 바치는지, 성사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등을 배웁니다. 교리교사들은 각자 다섯 권의 ‘요리책’을 독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씀으로써 지침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한 농부가 ‘요리사’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협력자’로 거듭나기 때문이며, 이는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입니다.

초타 성직 자치구는 이번에 기존 자료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리교사 양성 과정에 쓰이는 교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본당과 마을로 가져가는 책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총 33,000권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노력은 넘쳐나지만, 가난한 자치구의 빠듯한 재정 자원으로는 비용이 한참 모자랍니다. **선교의 레시피가 다시금 유행할 수 있도록 ACN은 인쇄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경공부 수업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

바실란에서 교회의 사명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평화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필리핀 이사벨라 데 바실란 성직 자치구

주민의 절반가량은 24세 이하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과 폭력의 그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실란섬이 속한 민다나오 군도는 수십 년 전부터 이슬람 테러집단에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구 약 40만 명 가운데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레오 마그두고 달마오 주교는 아주 작은 공동체까지 복음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10개 본당과 87개 공소에서 3개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갈라 5,22-23 참조). 이를 바탕으로 사제와 수도자로부터 공동체의 리더로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이후 마을에서 똑같은 평화의 정신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ACN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올해 약 1100만 원의 비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교회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유치원에 살아있는 신앙



엘리아스와 안토니

떠난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니켈 수녀와 루마 수녀

모든 사람의, 또한 가장 소박한 영혼을 위한 신앙 교육은 성 도미니코가 도미니코 수도회를 설립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많은 작품에서 성 도미니코는 성모 마리아의 손에서 묵주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씀처럼 묵주는 “복음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교육은 특히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열한 번째 계명과도 같으며, 그 중요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 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슬람교가 중심인 사회 속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대학, 유치원에 큰 가치를 둡니다. **이라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은 미래를 위한 기초입니다. 피난을 떠나 난민이 된 지 수년 만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니네베 평원으로, 그들의 고향이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자비로 그들의 집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잔해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와 교육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미래가 큰 문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돌아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의 가장 큰 그리스도교 도시인 카라코시에서 상급 학교를 증축하고, 그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가톨릭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도미니코 수도회가 이 일을 맡습니다. 도미니코회 수녀들이 그리스도인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칼데아 가톨릭교회 신자들은 바트나야에서 270년 동안 살아왔는데, 6년 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 IS(다에시)를 피해 모두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75가구가 바트나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는 본당 사제는 앞으로 150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허였던 이곳에서 사회 기반 시설이 재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 진료소가 세워졌고, 수도와 전기 공급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유치원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이었던 곳은 비록 파괴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 이곳은 교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상징이 되며, 또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바트나야는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형제자매들의 도움 없이는 완전히 파괴된 유치원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ACN은 바트나야에 유치원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약 2억 795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입니다.** 어린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며, 식사 때 기도나 묵주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도미니코회 수녀들은 내년부터 벌써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ACN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참여를 계획 중입니다. 모든 전쟁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전통들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파괴 이전 바트나야 유치원 어린이들의 단체 사진



파괴 이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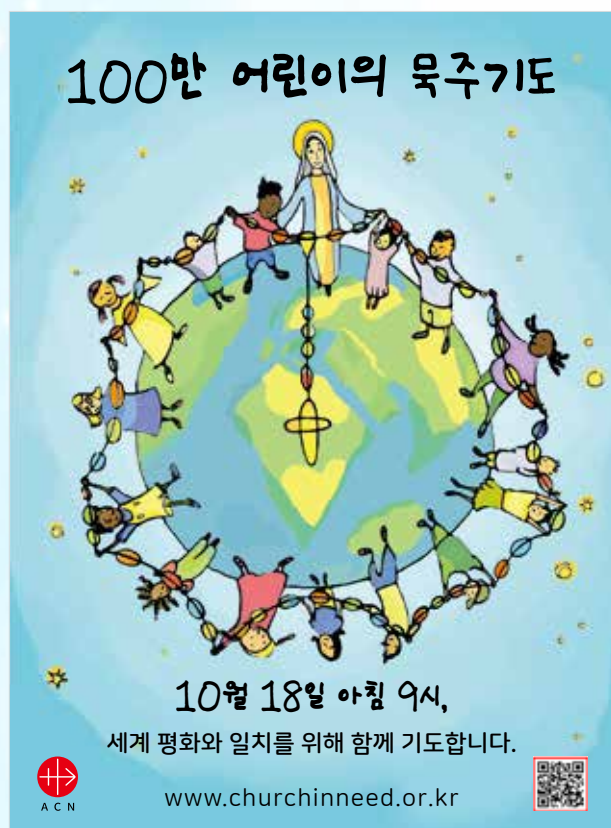


복구를 위해 잔해가 치워진 마당

ACN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자녀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가정 ‘기도 시간’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은,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절대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Rosarium Virginis Mariae)」, 42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서에서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든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자 바르톨로뮅고의 말을 인용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또한 스스로 훌륭한 모범으로서 이에 앞장섰습니다. 묵주기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에 ‘묵주기도의 해’를 선포했고, 빛의 신비 5단을 제정했으며, 자신의 교황직을 성모님의 특별한 가호에 맡기고 신자들에게 묵주기도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평화를 향한 종교적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는 일에 몰입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917년, 파티마의 세 어린이 앞에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묵주를 쥔 그 작은 손에서부터 시작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는 이제 명실공히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여 평화와 일치를 위한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나라만 80개국에 달합니다.

ACN은 해마다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주도하여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패키지 제작, 배포 등 여러 비용을 책임지는데, 약 7800만 원 이상 지원합니다.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묵주기도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굳세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그중 **우루과이**는 엄격한 정교 분리주의 국가인데, 이곳에서도 묵주기도가 작은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드리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에 몬테비데오 대교구장 다니엘 페르난도 스톨라 추기경은 올해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참여하는 가톨릭 학교에 배포할 패키지 3천 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묵주기도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묵주기도의 신비가 전 세계 1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ACN을 위한 공병 보증금

우리는 산책을 할 때 자주 공병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병들을 주워 반환하여 그 돈을 좋은 목적을 위해 저축해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큰 금액 모여 이제 우리의 공병 보증금을 기부할 단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지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사랑의 메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ACN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의 과제는 기도와 사랑입니다

저는 호주에 사는 수녀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톨릭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91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표를 동봉합니다. 가끔씩이라도, 제 기억이 아직 온전한 동안에는 또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모든 사제들에게 전하는 인사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사제 성소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제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제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여러분의 훌륭한 활동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힘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잃지 않고 품위 있는 삶 한 조각이나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ACN 긴급식량지원 캠페인,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사고

2020년 8월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온 도시가 초토화되어 그리스도인 거주지 또한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ACN은 즉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긴급식량 지원 캠페인을 벌이면서 실제로 기아에 허덕이는 그리스도인 가정 6천 가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ACN은 여러 가톨릭 단체와 협력하여 파괴된 성당 및 주택 수리, 교육, 의료 서비스와 기반 시설 등 각각의 지정 영역을 책임지는 것으로 지원 사업을 조정하며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 생일기부, 오예지 켄마 님과 오윤지 예바 님

2017년 5월 29일에 태어난 오예지 켄마, 오윤지 예바 어린이의 세 번째 생일을 맞아 오정택 베드로, 감미경 글라라 부부는 ACN 한국지부에 1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감염 예방 조치로 인해 전달식은 생략하였지만,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와 함께 간단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소중한 자녀의 생일이나 사랑하는 이의 축일에 기부를 통해 특별한 날의 행복을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에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신 오정택, 감미경 가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100만 명의 어린이가 같은 것을 동시에 청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전 세계의 어린이 여러분, 10월 18일 아침 9시에
우리 다 함께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쳐요!
성모님의 손을 잡고 바치는 어린이의 기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캠페인 안내 및 패키지 다운로드

아래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내 영상과 패키지를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링크 주소 <https://bit.ly/1mChildren>



ACN 한국지부 첫 유산기부, 고 흥순희 루피나 님

2020년 3월, 대장암으로 선종한 고 흥순희 루피나 님은 유언을 통해 유산 중 1억 원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남기셨습니다. 고 흥순희 님의 자녀, 박진구 임마누엘, 박연실 소피아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함께 들여드리고자 기부처를 찾는 과정에서 한 신부의 소개로 ACN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습니다. 고 흥순희 님은 유언에 ACN을 지명한 적은 없지만, 2017년 5월에 이미 ACN 한국지부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돼 두 남매는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라며 어머니 뜻에 맞는 기부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기부 전달식은 2020년 7월 3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 있는 ACN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는 유족들과 함께 고인을 위한 연미사를 집전했으며, 유산기부 1억 원은 미사 중 봉헌 예물로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에 ACN 한국지부를 설립한 이래로, 유산기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지부장 신부는 고 흥순희 님처럼 “선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유산기부가 한국에서 좋은 문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 흥순희 님의 기부금 1억 원은 기부 의사에 따라 ACN 시리아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통받는 시리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의 약속을 남겨 주신 고 흥순희 님과 어머니의 뜻을 실천해 주신 두 자녀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